

천진도인 일화 마을의 자랑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20 금성산 다보사



경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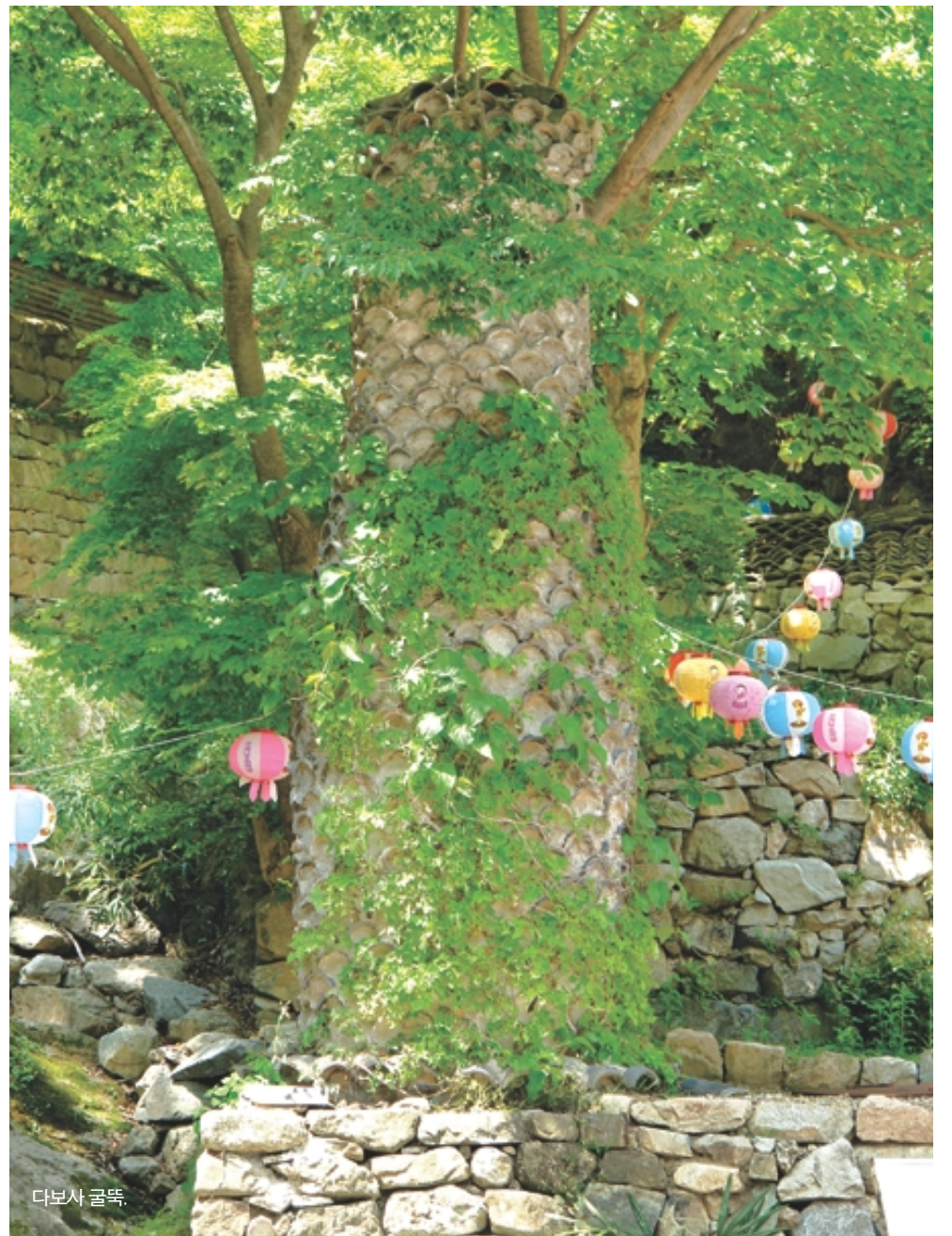
“집동, 지임동이라했다 그래. 어른들 말씀이 그래. 집(집)이 나대서 지임동이라 그래.”
 “그 전에는 팔십 가구였는데, 지금은 더 되어, 식당은 팔에라.”
 “농사가 없어. 빈촌이여, 빈촌. 물도 없고, 농토도 없고, 그래.”
 “시내 나가서 풀 팔아서 먹고 살제. 별안이로(별처럼) 사냥해서 들오제.”
 행정상 명칭은 나주시 경현동. 다보사 아랫마을 누정에 소주 두 병 아이스크림 몇 개를 풀어 놓았더니, 환담 중이던 사람들의 입에서 저마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스님들의 속기는 없었고 하니, “이 마을에는 없었다”고 김금제(80·경현동씨)가 말한다.
 “우와 시님, 우와 시님. 돌아가신 스님이 진짜 시님

이었제. 솔찬히 되어. 한 30년도 넘겼오.”
 천진도인 우화(雨華) 스님(1903~1976)에 대한 얘기가.
 “그 낭만 돌아가실 때 사리가 질 많이 나왔단 해. 문 악해서 했어.”
 “시님이 참 좋으셔. 가쁜 마음을 편하게 해 줘요. 이야기도 해주고, 술 생겼으면 안 자상께, 술값 주고 그란 것은 없어. 처세를 잘 했어오.”
 “택시 타고 다닌 법이 없었어. 차도 없고, 시내 장 봐도 지고 올라가고 그랬어.”
 승육숙(64)씨와 김연자(64)씨가 주거니 받거니, 스님과 관련된 일화를 풀어 놓는다.
 “키도 쪼그란 해 가지고, 짝딱딱하니, 얼굴을 봐봐. 꼭 두께비 상이여 갖고, 상호가 존 사람이여 갖고, 그 래 갖고, 다보사를 지켰제. 쪼그 나무라도 하고 그러면

스님이 고향을 치면, 산이 짜짜짜 울리고 그랬제.”
 이점순(86)씨의 말이다.
 스님이나 대사라는 호칭보다는 도인이라는 칭호로 더 많이 일컬어지는 우화 스님. 스님에 대한 일화는 알려진 게 많다. 스님이 예산 덕순산 수덕사의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 선사를 모시고 수행하고 있을 때, 여름 결제에 앞서 모든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는데, 우화 스님만 짙 마당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자 만공 선사가 “그대는 왜 탁발을 나가지 않는가?”라고 꾸짖자, “스님. 생사대사(生死大事)가 화급한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해서 천하의 만공도 “그렇게까지 급한 사람이라면 탁발할 여유도 없겠지”라고 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살아있는 것이라면 모기도 죽여서는 안 된다하여, 우화 스님의 모시웃은 사람의 피를 포식해 배가 터져 죽은 모기들의

“절 보다 교회 더 많이 다녀” 70가구 중 농사짓는 집 세집 “열무, 경현리 거러면 알아줘”

피로 시뻘겍게 물들어 있었다는 이야기, 다보사 주지 시절 도둑에게 해우소 불사를 위해 모아둔 돈을 빌려주어 도둑을 감복시킨 이야기 등, 천진도인다운 그의 일화는 굵직한 후인에게 죽비소리로 들린다.
 “절에 다닌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김금제의 말끝에 김연자씨가 손가락을 짚으며, “길동 어메는 인자 다녔고...” 하는데, 난데없는 고향 소리가 들린다. 김금제씨다.
 “모든 소리 하지 마시오. 길동 어메는 지그 한아씨 때부터 당진 사람이여. 지그 시아부지, 어메가 끌딩이여, 끌딩.”
 무안해진 김연자씨가 입을 다문다. 마을 사람들 중 절에 다니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이라도 살림 잘 하는 시님만 오면 할 수 있제.”
 김금제의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현재의 절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래서인지 절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우화 스님에 관계되어 있다.
 경현동에 닭요리 잘 한다는 집들이 몰려있다. 간간이 드나드는 차량들은 대개 닭요리 집으로 향한다. 처음 닭요리 집이 생긴 건 25년 전쯤이다. 70가구가 넘는 마을이지만, 농사짓는 집은 세 집뿐이라고 한다. 지금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집들이 있는 반면, 또



다보사 골목

그만큼 마을에서 나가는 집들이 많다고 한다.

“이 동네가 열무가 유명해라. 그래서 조합에서 해 가지고 열무 살릴라고 그만다 합디다. 경현리 것이라 하면 열무가 쪼라. 토질이 틀려서 근닥합디다. 저 건너는 논에다 많이 하고, 여그는 자갈밭이라 좋디합디다.”
 김연자씨의 말에 착박한 땅에서 살아왔을 이들의 고단한 삶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을을 지나 절로 향한다. 오래전 우화 도인이 바람을 매고 걸어 올랐을 길. 절 밖에서는 공양을 하지 않았기에 그가 절에 들어올 때는 허기져 있을 때가 많았다.
 도려 높은 스님의 생애를 되새기며, 길을 오르자 어느새 숲 깊은 다보사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여관처럼 지어 놓았다고 말하듯 신축건물이다. 계곡을 꼭 채우고 있는 건물은 숲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도 옹도는 다양할 터이니 그 쓰임은 아름다울 것이다.
 금강문을 지나니, 범종루가 보이고, 대웅전이 보인다. 범종루에는 달랑 범종 하나 뿐이다. 건륭 32(1767)년 제작되었다는 범종. 조선 후기에 제작된 범종이지만, 고래를 무서워 한다는 두 마리의 포위를 세긴 조각 수법은 빼어나다. 기와 사이에 흠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쌓여진 골뚝은 이채롭다. 대웅전



다보사 경내 전경

처마에 닿는 높이인데, 여러 덩굴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다.
 언제 보아도 다보사 대웅전 꽃살문은 옛적 장인의 섬세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화, 매화, 모란을 새겼다고 하는데, 연꽃 문양으로 보이는 무늬도 있다. 천천히 영산각 갔다 오는 길.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나오더니 기와로 쌓여진 담 위에 서서 물끄러미 나를 본다. 아니 한가히 마실 나온 다람쥐 한 분이 육전에 뭉친 내 눈을 바라본다. 두려움도 성냄도 없는 다람쥐의 눈을 향해 합장을 하고 가만히 돌아선다.
 나주=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블로 박정자 선생

국내 최초 여성 단청장 기부도 열심·10월 전시 계획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후조 민하(閔) 박정자(9·나주시 산정동) 선생은 여성으로는 국내 최초의 단청장이다. 서예와 동양화를 하였던 그가 불화에 빠져든 것은 1971년 만봉(閔奉) 스님의 불화를 보고 나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88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나무모은중경’이라는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불화는 그리고 싶다고 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 그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싶다”와 “그려진다”의 차이는 크다. 불화는 그림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손재주나 요령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려야 한다. 또한 워낙 세밀로 그리기 때문에 보통 탕화 하나를 그리는 데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게 탄생한 불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불화 그리기는 이를 불모라 칭한다.
 작업실을 가득 채운 불화를 곁에 생소한 작품 하나만 에 떤다. 날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데, 나만은 아름답게 살다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은 거지요. 여윌게 아름답게 죽을까지도 예견한 부처님의 그마음의 의미 있게 여겨져서 저도 관어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렵게 그린 작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녀. 그가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을 말한다. 불심이 깊어지면, 하나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가 오는 10월에 전시회를 한다고 한다. 생사를 초월한 그의 작품이 기대된다.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은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는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 ※이른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딸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 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I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소량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관 (입금후 2일 이내 배송)